

iam.g.o.a.l.o.r.k.r  
**iam**

November 2020

© Published in Korea by GOAL.

**INTERNATIONAL  
ADOPTEE  
MAGAZINE**



기욤 듀레 ■ 새로운 사회질서  
어담티브릿지 ■ 사라 할스트롬  
사단법인 둥지 ■ 뿌리의집

EDITION #1  
November 2020

- 2 **GOA'L UPDATE**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메시지
- 4 **THE WAY HOME**  
기욤 듀레 (GUILLAUME DURET)  
“여기서 지낼수록 낯설던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 점점 좋아져요.”
- 8 **LIFE & CULTURE**  
새로운 사회질서  
코로나 시대의 서울, 바뀐 곳과 바뀌지 않은 곳
- 11 **INTERNATIONAL ORGANIZATION**  
어답티브릿지 (ADOPTEEBRIDGE)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입양인 단체
- 13 **MEET AN ADOPTEE**  
사라 할스트롬 (SARAH HALLSTROM)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 거주 입양인
- 15 **ORGANIZATIONS IN KOREA**  
사단법인 둥지 (NEST)  
뿌리의집 (KOROOT)

**iam** INTERNATIONAL  
ADOPTEE  
MAGAZINE

■ 편집 에디터  
Tom McCarthy

■ 콘텐츠 에디터  
Kara Rickmers

■ 번역  
한국어  
백윤진  
송영희  
임택수  
김정희  
이현지  
이승주  
불어  
오소연 - Nathalie Kesler  
박현춘 - Nicolas Beaufour

■ 레이아웃 & 디자인  
Didier Yoo

■ 사진  
GOA'L

■ CONTACT US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6호

이메일  
media@goal.or.kr

웹사이트  
www.iam.goal.or.kr  
www.goal.or.kr

전화번호  
+82-2-325-6585 (한국어)  
+82-2-325-6522 (영어)

본 간행물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해외입양인연대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전 세계 입양인 단체에 무료 배포됩니다.

## 해외입양인연대사무총장 메시지

2019년 재외동포 수는 750만 명에 육박했다.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명임을 감안하면 인구 수 대비 재외동포 비중이 세계 최대이다. 재외동포 중 한인입양인의 비율은 2.5%(20만명)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외동포의 대다수가 한인입양인이다.

이처럼 한인입양인이 전체 재외동포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재외동포의 대다수가 한인입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인 문제는 한국 국민과 한국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다.

우리 입양인은 크게 “재외동포”의 범주로 분류되며 여러 형태의 재외동포중 한 부류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입양인 상당수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기 보다는 입양된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에 온 입양인들은 일반적인 재외동포들보다 훨씬 더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느낀다. 입양인들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외국인이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일반적인” 재외동포와 비슷할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한국에 온 입양인들은 각자 자신의 입양국가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이지 한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IAM 매거진은 전세계 입양인들에게 모국과 모국의 입양인 커뮤니티에 대해 알리고자 창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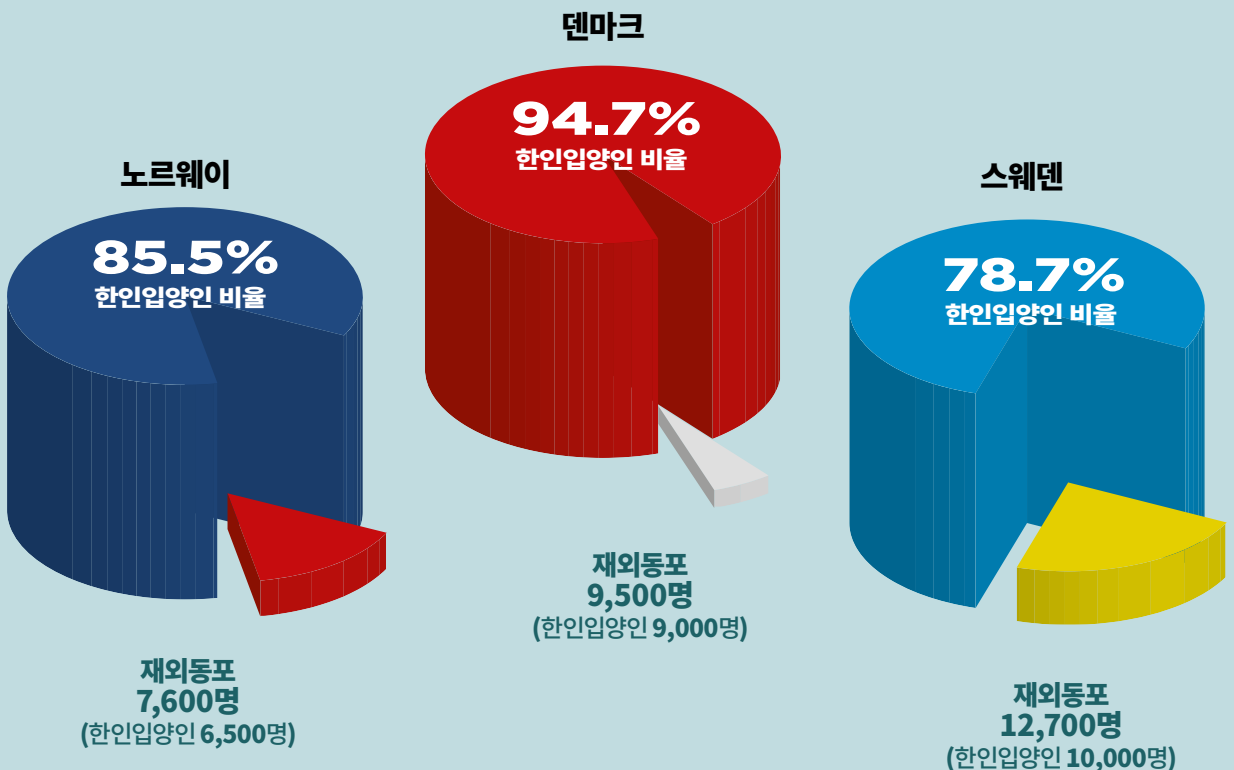
이 잡지를 통해 입양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입양인 관련 단체들과 각기 고유한 국가 및 문화를 대표하는 전세계 입양 단체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활동을 알리고자 한다.

그러나 전체 재외동포 중 해외입양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건데 이 잡지의 목적은 입양인 커뮤니티를 뛰어 넘어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전세계 15개국 20만명 이상의 한인입양인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아이리 하계네스

일부 스칸디나비아권 국가의 재외동포 중 한인입양인 비율(추정)



INSTITUT  
FRANÇAIS

주한 프랑스문화원

# 기욤 듀레 (GUILLAUME DURET)

“여기서 지낼수록  
낯설던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이 점점 좋아져요.”

**이번 호를 시작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연재할 예정이다. 입양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들여보고자 한다.**

이구홍의 이야기는 1985년 부산역 115호 열차에서 그가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그는 자기 이름과 나이가 세살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1년 후, 그는 비행기에 실려 프랑스로 보내졌다. 도착한 곳은 프랑스의 브리타니였다.

그곳에서 새로운 보호자인 패트릭과 마리엘 듀렛 부부를 만났고 부부는 그에게 기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부모님은 자연입신이 어려웠어요”라고 말하며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셨다고 했다. 기욤의 부모님과 같은 이유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당시 유행이었던지 아니면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한국을 선택하셨죠.”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 기욤은 프랑스 생활에 쉽게 적응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욤은 자신의 유년시절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자신의 유년시절은 편안하게 그를 태우고 흘러가는 작은 강과 같았다고 했다.

기욤이 처음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건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전문 요리사인 아버지는 집에서 수많은 한국요리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아버지는 한국에 무관심했던 기욤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한국 음식을 해주셨던 것 같고 동시에 기욤 형의 프랑스 적응을 수월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셨던 것 같다고 했다. 형 마누엘은 7살에 입양이 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선명한 기억을 갖고 있었다. 프랑스에 와서 마누엘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때문에 힘들어했다. 기욤의 부모님은 한국 음식 외에도 두 아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애쓰셨다. 프랑스 한인입양인 단체인 라신스 코레에서 발간한 최신판 신문과 여러 책을 통해 한국을 접하게 해주셨다. “부모님은 입양에 대해 숨길 수도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었어요. 저에게 늘 합리적으로 대해주셨어요. 모든 정보를 공유해주셨죠.”

두 아들을 합리적으로 대하며 키운 것이 성공을 거둔 것 같다. 형 마누엘은 프랑스 북부의 한 기업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그 곳을 자신의 고향이라 부르고 편안하고 행복해한다. 한편, 프랑스와 8시간의 시차가 있는 서울에 사는 동생 기욤은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사무총장의 업무를 잘 해내고 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한국에 대해 알려주려고 노력한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질문에 기욤은 “거부했던 건 아니고 그저 관심이 없었어요”라고 말한다.

모국의 부름을 느낀 건 입양 후 27년이 지났을 때다. 그 때도 그저 작은 속삭임 같은 것이었다. “20대가 지나면서 세월의 흐름에 대해 느끼기 시작하잖아... 인생에 대해 의식을 할수록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요.” 기욤은 적어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강하게 자석처럼 끌리는 감정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직장을 그만두고도 2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그게 바로 한국에 오게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2011년 9월 기욤과 마누엘 형제는 입양 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휴가를 보내며 한국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기욤이 웃으며 말한다. 당시에는 한국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보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 “한국어로 ‘안녕’이라고 말할 줄도 몰랐어요.”라며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승무원에게 물어보야했던 일을 떠올렸다. 정신없이 지나간 한달동안 형제는 신촌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다른 입양인들도 알게 되고 한국 여자도 만나고(만나려 하고), 한국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보려했다.

형 마누엘에게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입양인으로서 잠깐 맛본 한국생활이 기욤 내면의 무언가에 불을 붙였고 결국 그는 한국에 더 있기로 했다. “외부에서 한국을 보면 간단해 보여요. 고기 구워먹고, 클럽 가고, 관광하고요... 그런데 전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기욤은 서강대 한국어 프로그램에 등록 해서 3단계 (총 6단계) 까지 공부했다. 친구들을 사귀고 서울을 탐색했다. 어느 날 밤 여러 친구들과 이태원에 갔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국 여자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결국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매일 카카오톡을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죠.”

서강대에서 3학기를 마치고나서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직업도 없고 가져온 돈은 점점 줄고 있는 걸 알게 됐다. 더 머물러야 할 새로운 이유도 생겼다. 어떻게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운이 좋았어요”라는 평범한 답변을 한다. “프랑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글을 봤어요. 프랑스 문화원에서 사무총장을 구한다는 구인공고가 있었지요.” 기욤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한다. 그래도 그는 지원했다. 면접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공정제어공학 석사이며 문제해결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이 있고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통해 예산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자신이 새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를 설명했을 때였다고 믿는다. 계획하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가 그 증거라고 기욤은 설명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그는 프랑스 문화원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프랑스 대사관의 문화부서 역할을 하는 프랑스 문화원에서 원장을 보좌하며 인사, 채용,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다.



직장을 구한 기욤은 본격적으로 삶을 일구어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 은미와 계속해서 만났고 그때부터는 이태원에서의 데이트가 아닌 전국을 여행하고 등산하고 낚시도 하며 한국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은미가 영어를 하고 당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문화차이로 인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연인관계에서 당연히 여기는 부분이 기욤에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토로한다. “프랑스에서는 연애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고 사생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100% 헌신해야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남자가 모든 비용을 내야한다!”는 거였다.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기욤과 은미는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욤은 은미와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서양국가에서는 결혼전 동거가 흔한 일이다. “하지만 결혼 전 동거는 한국문화에 반하는 것이어서 처음에 은미와 의견차가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은미가 처음에 많이 걱정했었다고 말한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은미가 기욤을 만나는 걸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저에게 잘 대해 주었어요. 저를 받아들여 주면서도 상당히 궁금했죠. 3~4개월 정도 지나서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가 100% 외국인이었으면 저를 달리 대했을거라고요. 제 얼굴이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일을 쉽게 만들었던 거죠.” 그들의 호기심은 입양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서 기인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그걸 저한테 말하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난 프랑스에서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화가나는 감정은 전혀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입양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그러더군요.” 기욤도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는 불편해서 한달도 못살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보내는 것에 대한 그들의 동정과 죄책감까지도 이해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입양이라는 주제가 한국인과 입양인 모두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 그는 호텔에서 자신의 입양서류를 살펴보았다. “서류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라고 태연하게 말한다. 그리고 얼마 후, 은미는 입양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입양인 이야기를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인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카메라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방청객”까지 고용한 감정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정말로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기욤은 어땠을까? “저는 프로그램 내내 웃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제가 좀 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원했지만 저의 경우 제 인생이 정말 괜찮았다고 분명히 소개부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출연한 이유는 단지 친생가족을 찾음으로써 내 인생의 물음표를 지우려는 것이었어요.”

방송에 출연하고 2~3년 쯤 지났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때부터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2~3년 동안은 프랑스가 제 고향이라고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 작별인사를 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프랑스가 고향같지 않아요. 인천 공항에 도착할 때 안도감을 느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럴수도 있지만 입양인들이 변한다고도 기욤은 말한다.

“처음 한국에 도착하면 문화적 충격이 있어요. ‘아니 뭐 이런 데가 다있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점점 좋아지기까지해요.” 언젠가 프랑스에 다녀왔을 때가 전환점이 되었다. “치안에 대해 제가 너무 의식 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한국은 참 편리하고 안전하잖아요,”라고 한국에 대해 흔히들 하는 얘기를 했다. “프랑스에서 지하철 탈 때는 가방을 조심해야해요.” 라고 말하며 배낭을 바싹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그는 한국에서 그런 비슷한 위험을 한번도 느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가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람들은 너무 규칙에 얽매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지식해요.” 한국에 처음 온 지 1년반 정도 지난 어느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고 타야 하는 버스가 막 출발해서 1미터 정도 앞에서 신호를 받아 멈춰 있었다. “버스 문을 두드렸는데 기사님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기욤은 버스기사의 안된다고 손을 휘젓는 모습을 재연해보인다. “저는 버스정류장에서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다. 방법이 없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버스 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발로 세게 쳤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라며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 한다. 도망가려했으나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다. 버스기사에게 수리비용을 물어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경찰관이 웃으면서 버스기사에게 ‘좀 태워주지 그러셨어요’”라고 했다고 한다. 이 때가 유일하게 한국사회와 문화가 정말 마음에 안들었을 때였다고 말한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대체로)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그와 그의 아내와 올해 네살이 된 딸 루시를 위해 잘 된 일이다. 마흔에 가까워지면서 그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의 다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인들처럼 고기에 소주, 치킨에 맥주를 즐기고 친구들과 가끔 축구도 한다. 가족 휴가를 가기도하고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게 인생이죠”라며.

아버지가 된 기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런건 비인간적이잖아요”라며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이를 극복하고 내가 가진 문화와 도구로 이곳에서 삶을 구축해 가는 건 각자의 몫이죠”라고 말하며 입양인들이 모국에서 지내는 독특한 문화적 관점을 제시해준다.

한국에 살면서 입양인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하게 “전혀요! 한국에 살면서 입양인이어서 좋은 점은 없어요. 한국에서 우리를 다시 입양하지는 않을 테니 우리가 각자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하는 거죠.”



기욤은 한국에서 동성 친구가 한명도 없었다고 얘기한다. “한국 남자들은 2년동안 형제처럼 생활하는 군복무를 하잖아요. 우리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의 클럽에 들어갈 수 없죠.”

수년간 입양인커뮤니티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입양인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한 적이 있어요.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었던데요.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싶었던데요.” 한국에서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한국에 정말로 살고 싶은 입양인들은 길을 찾기 마련이다.

기욤은 자기가 아는 유럽 입양인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흔하게 보이는 영어 강사로(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취업하는 것도 유럽 출신인 그에게는 어렵다. “그 친구는 낮은 급여 때문에 돈 문제가 쥔 크다고 말하지만 불평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은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한국에 살고 싶으면 한국에서 살 방법을 찾는거죠.”



몇년 전부터 그는 서서히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활동하고 있다. 입양인 축구 클럽에서 총무를 맡고 있다. 입양인 커뮤니티가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음을 인정한다. “입양인으로서 수많은 스토리가 있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양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TV프로그램에서 얘기했다는 그의 입양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부모님 관련, “저는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을 저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멀리 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잘 지내고 있어서 좋아하세요.”

친생부모를 찾는다고 해도, “크게 제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서로 잘 연락하며 지내게 된다고 해도 프랑스에 계신 부모님과 같은 느낌은 결코 아닐거예요.” 자신의 유년시절을 마치 영화처럼 떠올리며 밝게 웃는다. “저에게 입양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인생 스토리였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새로운 사회질서

코로나 시대의 서울, 바뀐 곳과 바뀌지 않은 곳

오후 1시경 나는 이태원에 있는 아파트를 나와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실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 평상시처럼 챙겨야 할 소지품을 점검했다. 열쇠, 지갑, 휴대폰.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추가된 한 가지. 마스크다. 지난 2월과 3월 코비드 19 확진자(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함)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어느새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다.

서구 언론에서는 독감 시즌부터 꽃가루 시즌, 이 두 기간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는 대기오염 시즌까지 일년 내내 아시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보도해 왔다. 코로나 발생 8개월이 지난 현재 이러한 예방 조치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대체로 저항 없이 시행되고 있다.

나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지난 몇 달 동안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를 지났다. 사람들은 버스에 오르기 전 마스크가 얼굴을 잘 가리고 있나 다시 고쳐 썼다. 명동에서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고, 별안간 운전기사가 승차하려는 한 중년남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마스크 쓰세요!” 놀란 승객은 즉시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고는 기사에게 건성으로 사과하며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실로 걸어가는 길에는 점심식사 후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많은 직장인들이 보였다. 마스크와 손소독이

일상화된 많은 직장인들이 두산위브오피스텔 건물 주변의 식당에서 쏟아져 나왔다.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실이 있는 이 건물에는 기업체와 대사관, NGO 등이 입주해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한국의 선제적 조치는 자주 보도되어 익숙했지만 이를 하나같이 잘 준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웠다.



건물에 들어서면서 손세정제를 받았다. 이제 손세정제는 모든 건물, 지하철, 버스에 비치되어 있다. 평균 필름이 씌워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후 마침내 사무실에 도착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에릭, 데이브, 카라와 함께 서울 중심부를 탐방하며 “뉴노멀”의 모습을 담고자 사무실을 나섰다.





우리의 첫 방문지는 광화문 광장이었다. 경복궁까지 이어진 대로변에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다. 우리는 즉시 바이러스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6월~8월은 참기 힘들 만큼 뜨거운 열대성 기후가 이어지지만 통계상론 관광 시즌의 성수기이다. 한때 다양한 문화상품과 체험을 제공하던 천막이 끝없이 늘어섰던 광장은 황량하게 비어 있고, 다만 늘 거기 있던 시위대만이 광장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광장을 지나 멀리 보이는 고궁 마당에도 방문객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이야말로 멋진 화보 촬영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다음으로 유명한 관광객 쇼핑 거리인 인사동으로 향했다. 한 때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였던 이 곳에 주욱 늘어선 상점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의 쇼핑 중심지인 명동까지 계속되었다.



여행 성수기지만 쇼핑객이 거의 없는 한산한 명동거리의 스산한 느낌마저 든다.

다른 해 같았으면 금요일 저녁 명동거리의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발디딜틈 없이 붐볐을 것이었다. 점원들은 가게 앞으로 나와 동양인 관광객에게는 각기 그 나라의 언어로 추정되는 말로 손님을 끌어모았을 것이다(놀랍게도 동양인들의 경우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 지 아는 듯 하다. 동양인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영어로 호객한다). 그러나 이 날은 한국어로 호객하는 소리만 들렸을 뿐, 관광객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우리는 한산하고 비현실적인 명동 거리를 찍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러하듯, 하나의 사태에는 동전처럼 이면이 있다. 관광지에서는 쉽게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 외국인이 많이 찾던 주요 쇼핑 지역의 영업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이태원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후 그 지역의 식당들은 술선수범해 더욱 더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고,



한국인에게 인기있는 익선동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테이블 수를 절반으로 줄여가며 손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마치 파도가 해안에서 멈추는 것처럼 그 지역을 벗어나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가면 느슨해졌다.

명동을 거쳐 익선동으로 이동했다. 퇴근 시각의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인스타그램러들이 선호하는 이 동네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이 만나 독특한 외관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곳의 카페에서는 빈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매력적인 동네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탄세상과 같았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바베큐 골목을 찾아갔다. 실내에는 테이블이 비좁게 붙어 있고 실외에도 자리가 있긴 하지만 북적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식당의 종업원들뿐. 마치 시간을 거슬러 코로나 이전 2019년으로 돌아간것 같았다. “한국인들의”한국에서는 이태원이나 명동에서 확인했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옆 테이블과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의자를 고쳐 앉다가 옆 사람들과 몸이 닿곤 했다. 회사원들과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존재 따위는 거의 잊어버린 것 같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그러했을 터였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외국인들"의 거리 이태원이 텅 비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시내 중심가의 분위기를 살피볼 겸 2차를 가기 위해 종로 3가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노상에서 영업하는 포장마차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몇 포장마차는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점에 이르기까지 행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전염병 시기에 필요한 에티켓을 보여주었다.



종로거리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를 신경쓰지 않는듯 보였다.

우리는 한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이미 판을 벌인 다른 테이블 옆에 앉았다. 그곳에도 방역은 없었다. 포장마차가 줄지어 들어선 이 거리의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먼젓번의 식당보다 이곳의 손님들은 더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전염병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듯 행동했고, 다음날 축구 경기 일정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 서울의 실외 체육시설은

당분간 폐쇄되었지만 외곽으로 가면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면 21명의 동료들과 함께 호흡하고 땀을 흘릴 수 있다.



여기서 이 기사가 마무리되어야 했다. 코비드 19가 적절히 통제되어 가는 나라, 한국에서 전통적이고도 일상적인 체험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침만 따르면 문제없었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극우 성향의 한 "교회"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서울의 중심부는 2만 여명의 군중들로 메워지고 격양된 외침이 도심을 흔들었다. 지난 늦겨울에 발생한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하게도 많은 신자들이 정부의 검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확진자 수는 하루 441명까지 올라갔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실내 체육시설을 전면 폐쇄했고,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았다. 학교와 학원의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했고, 심야버스는 운행 횟수를 줄이고 막차시간을 조정했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전면 폐쇄 조치의 효과로 경고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었다. 그러나 평상시처럼 업무를 재개하면서 도심 곳곳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입양된 나라의 뉴스를 볼 때, 우리의 일로 느끼며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언제나 그렇듯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 Tom McCarthy

# 어답티브릿지 (ADOPTEEBRIDGE)

## 미국 미네소타

**크리스틴 하이만은 미네소타주 로즈빌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인 어답티브릿지의 설립자 겸 대표이다.**

*어답티브릿지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어떤 목표로 시작하셨나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초인종적 초국가적 입양인들을 지원하고자 2017년 설립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입양인 사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과 입양인 가족에게 입양기관 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무엇입니까?*

첫 모국방문행사가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이런 성과로는 청소년 입양인 멘토 프로그램과 성인입양인 토론 그룹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입양인들과는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으신가요?  
어답티브릿지가 어떻게 발전해갔나요?*

미네소타에 있는 한 대규모 입양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입양기관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스토리에 대한 연결고리와 답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입양기관들의 주요 서비스 대상은 입양인이 아닌 부모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양인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존중받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윤리적으로 거기서 일하기가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시간 숙고 끝에 어답티브릿지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입양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특별하게 고안된 초인종적 입양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입양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입양인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사회 임원들까지 모두 입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입양인과 입양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3회(여름 2회, 가을 1회)의 한국으로의 여행을 개최했습니다. 2021년에는 모국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답티브브리지의 연간 스케줄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미국 학기중에는 10대 전체를 아우르는 초인종적 입양인을 위한 대면 및 온라인 그룹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년 내내 성인 입양인을 위한 토론 모임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입양인 가족을 위한 별도의 토론 모임도 열립니다.

**회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모국 방문 투어 외에도 대면 및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모든 연령대의 입양인과 입양가족을 위한 토론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어학 수업, 한국어 번역 서비스, 교육 웨비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미네소타주를 포함한 미국 전체에 한인 입양인이 많이 있지만, 초국적 입양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초국적 입양인들은 한인 입양인들에 비해 자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입양인을 환영하며, 우리 모두가 인종을 초월하여 입양인이라는 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모두를 환영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dopteebridge.org](http://www.adopteebridge.org) 참조하십시오.**

Responses by Christine Heimann

# 사라 할스트롬

## (SARAH HALLSTROM)

**사라 할스트롬은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에 사는 입양인이다. 사라는 어답티브릿지의 이사이며 자신은 물론 다른 이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사라 할스트롬이고 한국 이름은 권재니예요. 저의 양부모님은 당신들의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입양하는 것이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친생부모는 제가 태어날 당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저를 입양하는 곳에 보낸 후 이혼을 했어요.

###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나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달리기와 독서, 여행, 야외활동을 좋아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느 음식이든 잘 먹습니다.

###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 폴에 있는 아동병원 시스템의 인사관련 일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한 그들이 자기계발과 성장을 통해 직업적으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 몇 살에 입양이 되었고 어린시절은 어땠나요?

생후 4개월에 입양되었어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부모님은 모두 직장생활을 하셨지만 항상 저녁식사는 함께했고 언제나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입양이 어린 시절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백인이 대부분인 미니애폴리스 교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학교에는 저 같은 유색인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미네소타주에 한인입양인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어렸을 때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나요?**

어린시절 저는 한국과는 거의 연결고리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이용하신 지역 입양기관에서 여름 한국 문화캠프를 했을 때 몇 년간 참가 했어요. 부모님과 저는 항상 제가 미국에 도착한 날을 기념했어요. 이런 몇 가지가 어린 시절 저에게 주어진 한국과의 연결점입니다.

**한국에 다시 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떠했나요?**

2017년 여름에 가 본 것이 처음이자 유일한 방문입니다. 2주간 있었는데 매 순간을 사랑했어요. 제가 함께 여행한 그룹은 서울, 경주, 대구, 부산을 여행했어요.

도시, 시골, 해변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어우러진 완벽한 여행이었어요. 입양 이후 첫 방문인데도 이상하게 모든 것이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맛보는 걸 사랑했어요. 한국어를 읽거나 말할 줄 몰랐는데 놀랍게도 아주 쉽게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문한 곳들이 아주

청결해서 인상 깊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나라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성인으로서 언제부터 입양인 공동체 일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그런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저는 10년 전 쯤 입양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중국 입양인의 멘토 역할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저의 입양인으로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 아이가 맞닥뜨린 현실을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그 일이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질문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저에게 물어볼 만큼 저를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어답티브릿지의 이사입니다. 이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 미네소타 세인트 폴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답티브릿지는 국가와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입양인 커뮤니티에게 교육,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든 어디에 살던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모국방문 행사에 참여하면 개인적으로 여행할때 가기 힘든 한국의 학교와 아동보호시설 등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이 직장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입양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직장생활에 있어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입양된 것이 개인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때때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요. 그리고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꿈과 포부는 무엇인가요?**

직업적인 면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행복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인생계획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나요?**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 저의 미래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저는 양부모님들과 함께 이번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못갔고 2021년 가을에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때 방문하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척분들을 만나 뵙수 있기를 바랍니다.

■ Responses by Sarah Hallstrom

# 사단법인 동지

## (NEST)

사단법인 동지는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2007년도에 설립된 사단법인 동지는 동지 여행(국내 여행 프로그램), 사회 인큐베이팅 장학금 제도, 1:1 한국어 수업, 가자 코리아(모국 방문 프로그램), 해외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입양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동지의 임직원들은 모든 해외입양인들을 “동지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의 활동이 조금이나마 세상에 밝은 영향을 끼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동지는 해외입양인들에게 진정한 가족으로서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1. 동지 여행(국내 여행 프로그램)

2020년, 사단법인 동지는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국내외 입양인, 입양인 가족, 입양 관련 기관 종사자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6월~11월 중 역사, 음식, 힐링의 테마를 가지고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11일 ~ 12일 ■ 군산 역사여행

첫번째 여행에서는 다같이 역사 탐방을 하러 군산에 갔었습니다. 저희는 일제 강점기, 근현대사의 유적지를 탐방하며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2020년에 새로 입사한 동지의 임직원들이 처음으로 해외 입양인분들과 직접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더 뜻깊었던 여행이었습니다.

#### 2020년 9월 18~19일 ■ 서산 역사탐방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인 서산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여행기간 동안 우리는 해미읍성, 백제 왕릉, 정림사지, 부소산성, 고란사와 같은 많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여 백제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다같이 먹은 버섯전골과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더 즐거웠습니다.



#### 2020년 10월 17~18일 ■ 강원도 음식 여행

이 날은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여 숯갈비, 육회, 막국수, 황태 등 지역 토속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가 여행을 간 시기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시기여서 남이섬과 월정사, 오대산 전나무 숲에서 한국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 화담숲 힐링 여행

바쁜 일상과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다같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11월말에 화담 식물원에 갈 예정입니다. 울긋불긋 물든 나뭇잎과 평온해진 마음으로 모노레일을 타면 굉장히 즐거울 것입니다.

\*2020.11.19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취소됨

2020년 12월 19 ~ 20일 ■ 스키 캠프

12월 중에 동지 가족들과 스키 캠프를 갈 예정입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여행 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능숙하게 탈 수 있는 입양인분들에게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출전선수들이 겪었던 짜릿한 순간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2. 사회적 인큐베이팅 장학금 제도

사단법인 동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정착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지는 현재 (2020.11월 기준) 게임 개발, 코딩, TEFL, 바리스타 교육 및 요가수업 등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2020년 11월 7일 ■ 강릉 바닷가 자원봉사

올 여름철 커다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동해안 지역에 많은 부유물과 해양쓰레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지에서는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강릉 바닷가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뜻깊었으며 내년 여름에는 우리 모두가 좀 더 깨끗해진 바닷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3. 1:1 한국어 수업

감사하게도 동지에서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1:1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일주일에 1-2회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입양인들이 좀 더 쉽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수강했던 많은 입양인들은 한국말을 할 때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데에 편리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4. 가자 코리아!(모국 방문 프로그램)

‘가자코리아’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입양인들에게 동지가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에게 모국 방문은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순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을 돕기 위해 동지에서는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해외입양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식을 맛보며, 흥미롭고 교육적인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5. 해외 원조

‘동지’는 페루, 인도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세네갈, 필리핀, 마셜 제도 등 개발도상국에 해외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료 서비스와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지’는 치과 건립을 도왔고 장학금 지원과 재봉기술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웹사이트 [nestkorea.or.kr](http://nestkorea.or.kr)  
인스타그램 [네스트코리아](#)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올림피아 빌딩 501호

전화 02-535-3217





# 뿌리의집

## (KOROOT)

뿌리의집은 “한대의 마음”위에 세워진 해외입양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다. 해외입양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리사회의 입양 담론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사려 깊은 관점을 모색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이다.

뿌리의집은 2003년도에 설립되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입양인이 모국을 방문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입양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뿌리의집은 입양인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 사회와 입양인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인들의 해외입양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입양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친생가족 중심의 양육이 자리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양인, 친생가족, 미혼모들과 연대하고자 한다.



### 역사와 성과

뿌리의집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해외입양인들의 단기 모국방문을 위한 숙소 제공(KoRoot GuestHouse)이다. 지난 17년간 4,000명이 넘는 입양인들이 뿌리의집에 머물렀다. 이곳은 일종의 전세계에 입양인들의 모국방문

여행자 공동체로 기능했다. 여기에서 우정과 연대, 삶의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졌다. 여기에서 친가족들과의 재회나 한국 사회와의 호흡이 이루어지곤 했다.

공동체로서 혹은 세계적 입양인들과의 연대 안에서 뿌리의집이 펼쳐왔던 권익 옹호 사업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소중한 사건들을 만들어 온 영역이었다. 2011년 귀환입양인 단체들인 TRACK과 ASK와 연대해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일이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손에 놓여 있었던 60년 동안의 해외입양을 가정법원의 판결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편제시켜낸 쾌거였다. 바로 이 가정법원의 판결이라는 토대를 디디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어지는 아동들에게 비로소 IR-3 비자를 발급해주는 길이 열렸다.

## ORGANIZATION IN KOREA



1961년에 미국에서 걸으로는 종결되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 안에서 유독 그 길진 생명을 이어온 대리입양 (Proxy adoption)에 중지부를 찍고, 입양 아동의 인권보호의 길을 열어내었다. 또한 입양인의 추방도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하나, 뿌리의집 17년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입양인공동체와 친생가족과 미혼양육모공동체들이 연대해서 기념해온 '싱글맘의 날'에 동참하고 힘을 보탬 수 있었던 일이다. '싱글맘의 날'은 한국 사회의 담론 지평을 바꾸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마침내 한국정부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성장하게 하는 일이 입양보다 우선임'을 천명하며 2019년부터 '한부모 가족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원가정 보호의 원칙'이라는 국제적 표준을 한국사회의 내부적 가치로 삼도록 추동해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뿌리의집은 이 세 가지 성과들을 뿌리의집 17년 역사의 하이라이트로 기억하면서, 해외입양인 공동체와 친생가족 공동체, 양육미혼모 공동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일구어 내는 일에 연대 단위로 부름을 받아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 서비스 및 주요 사업

#### · 해외입양인 쉼터사업:

해외입양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 · 모국생활지원 사업:

국내 거주 입양인 또는 친생가족을 찾는 입양인 지원 및 전통 명절 행사 주관

#### · 인권 옹호 사업: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도 개선 및 연대 활동

#### · 연구 사업: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제도개선 연구

#### · 출판사업:


해외입양관련 담론 다양화를 위한 출판



웹사이트 [www.koroot.org](http://www.koroot.org) (한국어) [www.korootgh.com](http://www.korootgh.com) (영어)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oot.ngo](https://www.facebook.com/koroot.ngo)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25-10



내 뿌리와 멀리 떨어져 지내며  
난 어디서 왔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궁금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았다!  
마침내 나는 그냥 나임을  
알게되었을 뿐...

결국 내 자신과  
작품으로 나를 표현하는  
나의 재능을 통해  
내 삶이 채워져 감을 알게되었다...

## 표지 아티스트 김도핀 (Kim Dauphin)

나는 두 살 되던 해에 벨기에 가정에 입양되었다.  
한국 이름은 김은애. 부산에서 태어났다.

모국을 방문해 친생가족 찾기를 했고 친생가족을 찾았다.

벨기에에서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한국은 내 영감의 주요한 원천이다.

아시아 지역을 몇 번 여행하고 나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함과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내 그림을 통해 나를 매일 이끌어주는 고요함과 내적 평화를 발견한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해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

■ [www.kimdauphin.com](http://www.kimdauphin.com)

